
 의료기관평가인증원 <small>Korea Institute for Healthcare Accreditation</small> (중앙환자안전센터)	의료기관평가인증원 보 도 자 료		 중앙환자안전센터 <small>Central Patient Safety Center</small>
배 포 일	2024. 7. 19.(금)	보 도 날 짜	2024. 7. 19.(금) 조간
팀 장	이 승 희	전 화	02 - 2076 - 0650
부 장	서 희 정		02 - 2076 - 0660

환자안전 사각지대 해소의 교두보 제2기 지역환자안전센터 출범!

- 중앙 및 지역환자안전센터 교류회 개최를 통해
현판 수여식 및 2024년 상반기 사업 성과 공유 -

□ 의료기관평가인증원(원장 오태윤, 이하 '인증원')은 7월 16일(화) 제1기* 지역환자안전센터의 2024년 상반기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제2기**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을 축하하기 위한 '중앙 및 지역환자안전센터 교류회'를 개최하였다.

* (제1기) 강원대학교병원, 대한간호협회, 대한약사회, 대한의사협회, 삼성서울병원 (가나다순)

** (제2기) 국군의무사령부, 단국대학교병원, 대한환자안전질향상간호사회, 삼성창원병원, 예수병원(가나다순)

○ 지역환자안전센터는 환자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중앙환자

안전센터와 연계하여 지역 내 중소보건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환자안전활동을 수행한다.

○ 이번 교류회에서는 지난 1일부터 새롭게 지정·운영된 제2기 지역환자안전센터를 대상으로 환자안전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센터 지정을 의미하는 현판을 전달하였으며,

- 제1기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상반기 사업성과에 대하여 공유하고 의견을 교류하여 보다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약속하였다.

□ 제2기 지역환자안전센터는 지난 4월~5월 공모를 통하여 의료기관, 협회 및 단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, 선정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총 5개 기관이 제2기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최종 선정되었으며,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.

○ 이번 지정으로 제1기 지역환자안전센터가 소재한 수도권, 강원권과 함께 경상권, 전라권, 충청권까지 확대되어 전국적인 환자안전 관리체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.

○ 또한, 자부담 100%임에도 불구하고 환자안전과 의료 질 제고를 위해 국군의무사령부와 대한환자안전질향상간호사회가 제2기 지역환자안전센터 공모에 신청하여 지정되었다.

○ 전국 12개 군병원을 보유한 국군의무사령부와 다수의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회원으로 하는 대한환자안전질향상간호사회의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으로 전국 단위에서 환자안전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인증원 오태윤 원장은 “제2기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으로 전국적인

환자안전 체계 구축의 기틀을 갖추었다”며,

- 인증원에서도 “지역간 의료 격차를 완화하고, 보편적이고 균형적인 환자안전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를 도와 지역환자안전센터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, 지역환자안전센터의 동반자로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.”라고 밝혔다.
- 아울러, “우리나라 전체의 환자안전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환자안전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.”라며, “다양한 보건의료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”고 전했다.

붙임

중앙 및 지역환자안전센터 교류회



< 오태윤 의료기관평가원장 환영사 >



<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>



< 성균관대학 삼성창원병원 >



< 예수병원유지재단 예수병원 >



< 국군의무사령부 >



< 대한환자안전질향상간호사회 >



< 제2기 지역환자안전센터 센터장 >



< 제1기, 2기 지역환자안전센터 >